민족문화연구 제85호 편집자의 말

『민족문화연구』 제85호에는 2종의 기획특집논문 7편, 일반 논문 11편을 포함하여 총 18편의 논문과 해제 1편이 수록되었다. 분야별로 문학이 4편, 어학이 5편, 역사학이 6편, 미술학이 2편, 종교학 2편이 수록되었는데, 두 분야 이상이 결합된 융복합적 주제를 다룬 논문들이 적지 않게 투고되어 최근 학계의 동향을 감지할 수 있다. 기획특집으로는 '한국 전문 사전 편찬의 현재와 미래'와 '한국문화의 정체성 연구'가 수록되었는데, 기획특집 논문 7편에 대한 소개는 '특집의 말'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반 논문과 해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진한의 「高麗末・朝鮮初 權漢功에 대한 世評의 變化」는 충렬왕에서부터 충정왕대에 이르는 고려말의 대표적인 간신 권한공을 자료에 근거해 새롭게 평가한 논문이다. 권한공은 『고려사』의 간신전에 포함되어 있지만, 충숙왕대에 사면되어 최고 관직을 지냈고, 사후에도 존경받는 인물로서 권단의 문생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명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선 세종대 후반 이후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한 사서들이 편찬되며 임금을 배신한 인물로 평가되어 『고려사』 간신전에 수록되었다. 결국, 권한공은 당대에 존경받는 인물에서 '간신이 되는' 극적인 변화를 겪은 것인데 그 배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고 있다.

허용호의 「『뎡니의궤』를 통해 살펴본 화성 낙성연의 전모와 전통연희사적 가치"는 한글로 된 『화성성역의궤』인 『뎡니의궤』를 통해 화성 낙성연의 전모를 밝히고, 그 전통연희사적 의의를 따져본 것이다. 『뎡니의궤』는 1796년(정조 20) 10월 16일 화성 행궁 낙남헌 일대에서 행해진 다양한 종류의 연행에 관한 정보를 전해준다. 따라서 이를 통해 연행의 공간 구조와 무대, 참여 연희자들의 성격, 연희 종목은 물론, 위계에 따른 관객석의 배치, 밤 연행의 모습 등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의 전통연희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차후 전통 연희사 기술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조인철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상택지(相宅志)」의 내용 중 풍수에 관한 연구」에서 집터를 선정하는 풍수적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상택지』를 龍穴砂水의 형세론과 地勢向, 絶對向, 相對向의 이기론으로 구분해서 분석하고 있다. 『상택지』의 분석을 통해 서유구의 풍수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도로가 남쪽에 위치해 있는 집을 선호하며, 도로에 길게 접하는 대지보다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좁더라도 깊이가 있는 대지를 선호하는 당대의 풍수관을 밝히고 있다.

고현혜는 「이상의 컨버전스와 보자기 패러다임」에서 「지도의 암실」이라는 소설에서 천명되고 있는 이상의 한국적인 융합예술의 패러다임을 '보자기 패러다임'으로 명명하고 그것이 소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4단계의 고찰을 거쳐 성속을 매개하고자 하는 샤먼으로서의 한국 융합예술가 이상이 문학적 천문학·분변학 및 서양의 기독교 사상과 큐비즘을 한국 전통의 조각보에 접목·융합한 컨버전스적인 사유·글쓰기를 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남석의 「〈제방을 넘은 곳〉에 반영된 '원산 파업'의 의미와 현실 대응으로서 희곡의 역할」은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이서향의 등단작 〈제방을 넘은 곳〉을 분석하고 있다. 〈제방을 넘은 곳〉에 반영된 '원산 파업'의 현실과 식민지 조선의 현실 묘사에 주력한 이서향의 초기 연극관을 살펴봄으로써 월북작가로서 한국 연극사에서 사라져버린 이서향의 연극사적 의의와 위상을 재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유리는 「'미적 수양'에서 '명랑한 매력'까지—『동아일보』와 『신가정』의 화장품 광고와 화장담론」에서 『동아일보』와 『신가정』에 수록된 일본 구라부(クラブ, Club) 화장품 광고를 중심으로 분석한 화장 담론과 잡지 『위생과

화장』 등에 나타난 조선 지식인들의 계몽담론을 비교하고 있다. 비교를 통해 화장품 광고와 계몽담론이 동일한 논리적 기반 위에서 미를 추구하고 신체를 자본화하는 여성주체 되기를 학습시켰고, 그것이 시간에 따라 변주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인숙의 「근원 김용준(1904-1967)의 기명절지화 연구」는 동경미술학교에 유학한 선도적 서양화가이자 미술평론가였던 김용준이 그린 동양화 기명절지화를 살펴본 것이다. 기명절지화는 서양화가였던 김용준이 조선 회화에 눈을 뜨게 되고 동양화가로 길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김용준의 미술사 연구도 장승업의 전기로부터 조선시대 화가론과 작품론을 포괄하는 한국미술사 전반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기명절지화는 김용준이 미술사학자이자 동양화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장하는 증표가 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준희의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과 '옥심상점'」은 김옥심의 '옥심상점'을 사례로 삼아 1950년대 북한의 상업정책을 분석하고, 개인 상공업자의 쇠퇴와 국가 상업의 성장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1955년 등장한 '옥심상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농업협동화 이후 성장한 농민들의 소비규모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농민들의 소비처를 비조직시장에서 조직시장으로 끌어들였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재생산구조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옥심상점'의 성장은 1950년대 북한 정부의 상업정책이 계획경제를 위한 사회주의 재생산구조 확립에 방점을 두면서 인민의 증산을 도모한 것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이다.

김성순의 「동아시아불교의 발우공양 의례」는 한국불교의 '발우공양'에 해당하는 일본의 'Sodohandai (僧堂飯台)'와 중국의 'Guotang (過堂)'를 함께 분석하여 동아시아불교의 발우공양 의례의 특성과 의미가 '보시와 자비의 각인'에 있음을 밝혔다. 발우공양은 사원 내에서 모든 구성원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동일한 음식을 먹는 의례로, 음식을 준비한 이들에게 감사하고 자

신이 공양받을 수 있을 만큼 덕과 실천을 갖추었는지 성찰하며, 그 공양에 맞게 수행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서원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일상을 통해서 수행자로서의 본질인 '보시와 자비'를 각인시키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영우는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와 음가 변화」에서 전남 서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단모음 실현 양상과 음가를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구된 전남 서남부, 동부 지역의 결과를 비교하여 전남 지역의 단모음 체계가 세대를 중심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청소년층은 /ㅟ/, /ㅚ/가 단모음 체계에서 완전히 이탈한 7모음 체계인 데 비해, 노년층은 두 모음이 단모음 체계에 한정적으로 남아 있는 잠정적 7모음 체계이다. 또한 단모음의 음가 역시 세대마다 달라 노년층의 /ㅓ/는 전남 방언 연구의 전통적 가정대로 /ㅡ/에 가깝게 실현되었으나 청소년층은 /ㅓ/가 후설저모음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남호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동시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아동문학 비평 담론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시 및 그 선별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논자는 시 일반의 주요 비평적 관점인 '정확함', '실감', '새로움'에 근거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시를 실제로 비평하고, 이를 통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는 동시의 문학성을 높이고 아동문학 비평 담론이 풍성해지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근호는 조선 후기 규장각의 전·현직 관원들이 왕실의 경사나 흉사 등에 제출한 전문을 등록한 책인 『각전』을 소개하고 있다. 『각전』에는 모두 131편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순조대에 제출된 것이고 헌종대와 철종대에 제출된 것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전문등록』이라는 책은 대부분 왕세자를 비롯해 백관 등이 제출한 전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반해 『각전』은 규장각 관원들이 제출한 전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각전』은 순조대 이후 왕실의 동향이나 전문의 서식 연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민족문화연구』 제85호에는 각자 주제의식이 분명한 일반논문 외에 변화된 상황에 걸맞게 재음미해 보아야 할 주제에 관한 두 종류의 기획특집논문이 수록되어 독자들의 일독을 기다리고 있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는 민족문화에 관한 다양한 영역의 창의적인 연구를 지지하며, 앞으로도 훌륭한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투고되기를 기대한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